

시마다 미술관

구마모토시 서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설 운영되는 시마다 미술관에서는 번주였던 호소카와 다다토시(1586-1641)와 그의 후계자 호소카와 미쓰나오(1619-1650)의 비호 아래, 생애 마지막 5 년을 구마모토에서 보냈던 유랑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1584-1645)에 관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무사시에 관한 물품들은 대부분 구마모토에 남겨져 있으며 관내에는 그중에서도 3 분의 1 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물품들은 일본의 고미술을 각별히 애정하였으며 미술관이 개관하는 해에 타계한 시마다 마토미(1886-1977)가 수집한 것입니다.

수집품은 회화, 묵화, 필사본, 도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귀중한 작품은 무사시의 기일인 5 월경에 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작품은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킬 수 없으므로 연중 내내 교대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검객의 초상화

시마다 미술관의 볼거리 중에는 만년의 무사시를 그린 유명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왼쪽 얼굴이 보이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 사후에 그려진 초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 방식은 일본화의 관례에 따르면 그림의 대상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과 대결하는 순간의 표정과 자세가 무사시가 저술한 『고린노쇼(五輪書)』의 ‘水’편에 그려져 있는 것과 동일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초상화의 제작자는 실제 무사시라는 인물과 사상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관내에 소장된 에도 시대(1603-1868) 후기의 나머지 초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무사시는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반신격화되면서 상시 날카로운 시선과 양 어깨에 걸쳐진 머리카락, 양손에 쥐어진 칼, 맨발 등 초상화의 형식이 명확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수집품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이 아리마 기헤이와 최초의 대결을 벌였던 것으로 유명한 13 세 당시의 무사시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더럽고 까무잡잡한 얼굴, 손과 발, 가슴까지 곱슬곱슬한 검은 털로 뒤덮여 있는 무사시의 초상화는 세밀한 묘사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사후에 출판된 무사시의 전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사시 관련 물품

미술관 소장품 중에는 화가와 무사로 활약했던 무사시의 수묵화와 『고린노쇼』 ‘風’편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風’편의 필사본은 무사시에게서 원문을 건네받은 제자 데라오 마코노조가 1651 년에 작성하였으며 무사시가 저술한 원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무사시가 교토의 검술 도장인 요시오카 일파의 당주를 쓰러뜨릴 때 사용했으며, 호소카와 가문의 방계를 통해 계승된 무기 등, 도검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가벼움을 추구하고자 고안한 반원통 모양의 안쪽이 비어 있는 낫밀 ‘나마코쓰바’를 장착한 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전시실에서는 에도시대(1603-1868)와 메이지 시대(1868-1912)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현대 미술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명상에 최적의 분위기로 조성된 작은 정원도 있습니다.

시마다 미술관을 방문했다면 무사시가 만년을 은거했던 레이간도 동굴에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택시 회사 중에는 시마다 미술관과 레이간도 동굴을 둘러보는 관광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